



정교회주보

제2412호

2023.3.19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조지아는 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이며 수도는 트빌리시이다.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튀르키예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정교회 신자가 전 국민의 83%를 차지한다. 성 삼위일체 성당(사진)은 트빌리시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카즈베기의 해발 2,170m 산꼭대기에 14세기 무렵 세워졌다. 웅장한 산맥을 배경으로 서 있는 성당은 장엄하면서도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순절 제3주일 (십자가 경배 주일)

성 흐리산토스, 성 다리아 순교자
(제7조 • 조과 복음 7)

- * 조과- '찬양되시는 주여' 부르지 않음.
- * 대영광송 다음 '십자가 경배 의식' - 231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제7조 부활 찬양송	82
십자가 경배 찬양송	230
성당 찬양송	
사순절 시기송	223
'삼성송' 대신에	230
사도경 : 히브리 4,14~56	230
복음경 : 마르코 8,34~9,1	139
성모송	62
'우리가 참 빛을' 대신에 '십자가 경배 찬양송'	230

주님의 고귀한 십자가여!

천사들의 호위대가 이제 고귀한 십자가 나무를 경건하게 둘러싸고, 신자들에게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초대하는도다.

금식으로 빛나는 신자들이여, 와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하며 믿음으로 외칩시다.

기뻐하소서. 온 세상에 구원을 보장해주시는 주님의 고귀한 십자가여.

옛날의 저주를 멈추게 하시려고, 선힌하신 구세주시여, 당신께서는 죄를 제외한 우리의 육신을 취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음을 당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게 당신의 십자가와 창과 못과 해면과 갈대에 경배하며 당신의 거룩한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청하나이다.

'뜨리오디온 전례서'에서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가치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십자가 경배 주일을 맞는 오늘의 복음경 구절은 우리에게 다음의 사항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 사도 바울로가 절절히 느끼며 고백했듯,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갈라디아 2,20)을 의미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모든 죄악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죄악된 욕망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따르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후, 우리가 이 모든 희생을 해야 하는 이유를 덧붙이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우

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복음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듯이,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생명(영혼)을 잃는다면 어떤 이익도 없으며, 사람의 생명(영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마르코 8,36-37 참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의 뜻을 부인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죄 많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영혼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영혼을 잃었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된다면, 결코 그것을 되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전부를 다 해도 한 사람의 영혼보다 큰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일지라도 하더라도, 그 영혼은 세상의 황금이나, 고층 빌딩, 주식 시장, 보물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육신과 자발적인 수난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각 사람의 생명(영혼)의 가치는 유일무이하고 헤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시계’ 소리

아타나시아 봉사자

한 번은 어떤 농부가 헛간에서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찾아 보았지만 시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바깥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놀고 있었기에 농부는 아이들더러 시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한동안 찾아보았으나 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농부에게 자기 혼자 헛간 안에 들어가 시계를 찾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그러라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헛간 안에 들어가더니 15분이 채 못 돼서 시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농부는 매우 기뻐하면서 어떻게 찾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헛간 안에 들어가 한 구석에 앉아서 눈을 감고 아주 조용한 가운데 오로지 소리에만 집중하며 시계 바늘 소리를 들었어요. 먼저 째깍거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가보았죠.”

정말이지, ‘하느님의 시계’ 소리를 듣기 위해서 때때로 이런 침묵 속에 있는 것이, 또는 세상과 영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느님의 시계’는 곧 그분의 뜻이고 의지를 가리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조절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경험할 수 있는 하느님의 임재, 현존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시계’입니다. 물론 이 시계는 째깍거리는 소리를 멈추는

때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더러 깨어서 경계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전혀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 속에서 아이가 가졌던 고요한 태도(한쪽 구석에 앉아서 눈을 감고 조용한 가운데 귀를 기울인 것) 역시 기도 중에 필요한 바른 자세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런 좋은 본보기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여러 번 외따로 떨어진 곳으로 가서서 기도하셨습니다(루가 6,12). 또한 다불 산에서 변모를 앞두시고도 예수님은 변모 사건의 증인이 될 제자들로 오직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을 데리

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마태오 17,1-8).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것도 아주 당연합니다. 곧, 사도들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루살렘의 어떤 집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로 명백하게 그곳에 나타나셨으며, 이로써 다른 사람들도 ‘깨어 일어나’ 사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사도행전 2,1-6).

우리도 이 사순절에 고요와 침묵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시계’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산 성모희보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오는 3월 25일(토) 축일을 맞이하는 부산 성모희보 성당의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님과 모든 신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중보로 충만한 은총과 영적 성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목 오후 5시
석후대과
- * 수요일(3/22) 오후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금요일(3/24) 오후 6시
성모 기립 찬양 (4 스타시스)
- * 토요일(3/25) 오전 9시
성모 희보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

서울 성당 꽃 심기

다음 주일(26일)에는 부활절 맞이 꽃 심기를 합니다. 모두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 식

■ 오늘은 십자가 경배 주일입니다.

사순절 여정의 한가운데 있는 주일로, 금식과 예배와 기도로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통해 힘을 주어서 남은 기간을 잘 이어나가게 하여 주님의 수난과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십자가의 축복으로 사순절을 잘 보내고 성 대 주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정교회 용어 위원회' 발족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고 정리하기 위해 '정교회 용어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 위원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아타나시아 봉사자, 앙겔로스 유재원, 엘레니 조혜원

■ 영성 서적 독서를 권장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관련 서적('대사순절', '성 에프렘의 기도')과 그밖에 교회에서 출판된 서적들을 읽어 나가면서 영적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

성인의 가르침

언젠가 사막의 어떤 수도자가 기도하면서 사막에 살았던 옛날 사부들을 보여달라고 하느님께 청했다. 그러자 모든 사부가 보였지만 그들 가운데 대 안토니오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안토니오스 사부는 어디에 계시지?”하며 의아해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에 있다.”